

우리 모임에선

구미운불·청년회 합동법회

구미택시운전자회(회장 서병욱)은 10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구미불교포교인 청년회와 함께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50여 명의 구미운불원 회원과 가족을 비롯해 청년회원이 참석했다.

금강산 불교연 운영위

전국금강산불교연합회(회장 김윤하)는 26일 오후 7시 30분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금강산 합동법회와 보시활동 계획 등 9월과 10월 두달간에 걸친 사업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02)398-6464 이충훈

포항운불 정기법회

포항운불 정기법회(회장 권운재)는 26일 오전 10시 보경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개인택시 불자 운전기사와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562)277-9943

심상 철석법회 사진촬영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허애영)은 17일 철석법회 장면을 담기 위해 흥석동 백련사법회에 참석, 테마 사진 촬영활동을 벌였다. (032)321-5332

교리·건강·교육상담 많다

인터넷 부다피아 상담코너 개통 100일

헤거스님등 전문 상담원 5명 보강 페이지 새단장 내달부터 내용 공개

법률, 세무, 건강, 교육, 교리 분야에 걸친 직장직능 전문적 불자들이 상담요원으로 참여하는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상담페이지(http://www.buddhapia.com)가 18일 개통 100일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부다피아는 불자들의 상담내용을 분석, 상담요원을 세분화해 보강하고, 페이지를 새롭게 편성하는 등 제2의 서비스에 들어갔다.

양 방법과 사경법 순서(경남 거제시 박00씨) 등 학술분야에서 신행실이 상담요원으로 참여하는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상담페이지(http://www.buddhapia.com)가 18일 개통 100일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부다피아는 불자들의 상담내용을 분석, 상담요원을 세분화해 보강하고, 페이지를 새롭게 편성하는 등 제2의 서비스에 들어갔다.

고 있다는 31세의 백00씨 등 병원에 가기에는 쑥스럽고 용기가 나질 않는 젊은 불자들의 상담 건수가 많아 눈길을 끈다. 또 근저당 설정등 주택구입 방법, 매월 10~50만원 정도의 인건비에 대해 꼭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 세무 상담 등도 있다.

금강산원장 헤거스님과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화암스님이 교리상담을, 치과전문 김필성원장이 건강상담을 위해 앓을 나누는 보시에 새롭게 참여한다. 교육분야는 0년간 교편생활을 한 신수희 회장 이영자씨와 대전 법동초등학교 교사 조영숙씨가 불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세요”

금강경독송회 청장년 수련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용)는 7~9일 포항 금강정사에서 금강경 수지독경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청장년 수련회를 개최했다. 선착순 40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금강경 7독, 1시간30분간을 걸친 미륵존여래를 정진, 낯시간 울려와 ‘마음 바치는 법’에 대한 법문 경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송감호소 재소자 36명 수계법회

교화복지선도회 의류등 보시 청송 제2보호 감호소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7월28일 청송감호소 내에서 열렸다.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이사장 해철스님)의 주관으로 봉행된 이날 수계식에서는 재소자 36명이 5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3백50여 명의 재소자를 비롯해 해철 교화복지회 이사장, 청공 부이사장, 이정희 해인사 주지, 자은 심불정사 주지, 청산 교경사 주지와 신도 10여 명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축수계식및위문법회축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정진에 매진해 자유의 몸으로서 사회의 유능한 역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는 수계법회 후 청송 제2보호 감호소에 티셔츠와 속옷, 열주, 향 유유, 도서상품권 등을 보시했다. 도필선 기자



길상사 설법전 석가모니를 점안

길상사(주지 황선)는 11일 설법전에서 석가모니를 점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 주지 황선스님과 길상사 공역주인 길상화 보살을 비롯한 사부대중 6백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스님은 “진정한 예배는 부처님 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며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를 가꿔 나가자”고 법문했다.



불추위 조계사에서 통일한마당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지선스님)는 7월 31일 조계사에서 '99 불교통일한마당'을 개최했다. 불교통일한마당은 1부 기념법회와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으며, 불교계 인사 1천명 참여한 민족화합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파(관음종 총무원장) 원택(조계종 총무원장) 지성(태고종 총무원장) 지홍(조계사 부주지) 스님, 고영철 시인, 대불련·대불청 회원, 일반불자 등 7백여 명이 참가했다.



염불만일회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해강·보광스님·김재일)는 2일~4일 2박3일간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전국염불만일회 2차년도 성지대회를 봉행했다. 이번 염불성지대회에는 정토사 주지 설산스님, 건봉사 주지 해정스님, 법천스님, 동산반야의 김재일회장 등 1천여 명의 불자가 동참해 등공대 관음부 헌공법회, 철야 야미타 일만 염송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BBS 신행일기 공모 시상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한 제1회 신행일기공모전 시상식이 10일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대상은 시각장애인인 강시열씨(대구시 서구 중리동)의 작품 ‘불교와의 인연’. 금상은 안경미씨의 ‘귀한 만남’에 각각 돌아갔다. 이 자리에는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타스님, 강인성 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탐방 부산불교거사리회



부산불교거사리회는 8월 10일 동도사 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중법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상담·법보시로 생활불교 일궈

28년간 6백13회 법회 매월 선지식 초청법문

28년동안 6백13회의 법회를 열면서 초심자들을 불법의 숲으로 이끄는 모임을 이룬다. 72년 50명의 거사들이 주축이 돼 창립되었던 부산불교거사리회(회장 영명)는 이듬처럼 모임 자체도 거대한 숲으로 함께 성장했다. 28년 동안 매월 두차례씩 빠짐없이 열여온 정기법회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신심을 다지고 초심자들은 불법과 인연을 맺어왔다. 그렇게 부산불교거사리회를 통해 불

과 인연이 된 이들이 몇 만명을 넘어섰을 정도. 창립 당시 ‘생활불교’를 제창하며 거사들만으로 시작했던 거사리회가 이제는 남녀노스 누구나 참여하는 불법홍포의 장이 되고 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 삼일 지도법사 지안스님(통도사 강주)의 법회와 마지막주 화요일 선지식 초청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특히 마지막주 화요일 선지식 초청법회에는 그동안 항곡스님, 탄허스님, 서암스님, 석암스님, 이기영박사 등 선지식의 사자후로 불자들에게 바른 깨우침을 전해 왔다. 오는 9월에도 서울 금강선원 헤거스님 초청

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수련대회를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고 연 2회 성지순례를 겸한 사찰법회를 분, 가을로 봉행한다. 11대 회장인 서영건 회장은 “초심자 포교에 주력하고 법회를 통한 법보시의 진흥을 이어가겠다”며 “초심자를 위한 교리상담, 가정 상담 등의 활동으로 불법홍포의 환한 등불이 되겠다”고 밝혔다. 불법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불법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거사리회 이후로 자 하는 아름다운 숲이고 서원이다. 부산불교거사리회 7백여 회원들이 세운 서원은 30년 가까이 이어온 세월만큼 굳세고 울곧게 이어갈 것이다. 부산·천미회 기자 (mhcheon@buddhapia.com)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싸이내서 열매가 열리거든 하물며 정식을 가진 사람이겠는가?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라니와 더불어 무농약 유기농 재배로 깨끗하고 약성이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법 차나 송충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점이 황토삼백초만의 다른 점입니다. 손님 접대,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참고서적: 조규형 편저 [삼백초 건강법] 97.11.6 MBC-TV '고향은 지금' 98.9.24 KBS-TV '6시 내 고향' 99.7.10 SBS-TV '모닝 와이드' 등 방영 http://WWW.teafarm.com

SAM BU FARM 심부농심 전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맑고...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김(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김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가 어머니의 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은 것처럼 신김(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랄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